

공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수행의 귀감

특강-한암대중사와 금강경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원장)

3월 31일 '한암대중사 수행취임' 세 번째 주제인 '한암대중사와 금강경'에 대해 강의한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장)은 "평생 동안 터럭만큼도 틀이 없는 엄격함을 보인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과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각 스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평창 오대산은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도량입니다. 스님을 직접 뵈지 못했지만, 스님을 시봉했던 제자들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한암 스님의 생애, 정신, 면모 등을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한암 스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대산 스님들이 남쪽 지방의 선방에 내려가 수행정진하기 위해 어른스님에게 인사를 하면, '어디서 왔는가?'란 질문을 받습니다. '오대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른스님들은 오대산 스님들을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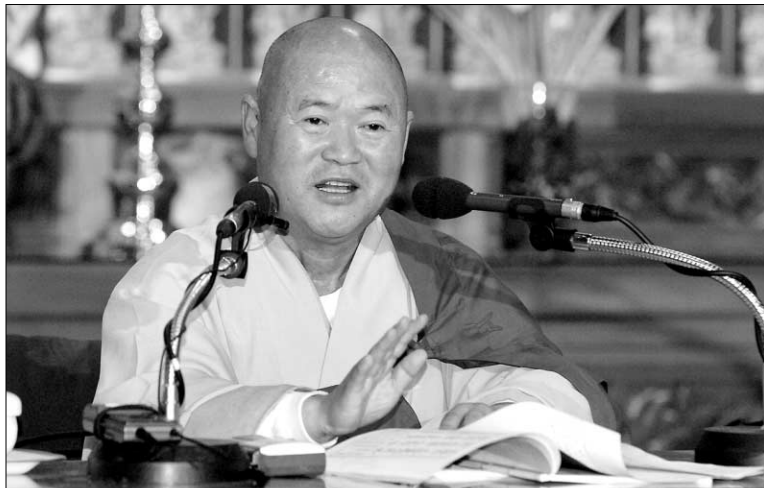
오대산 출신 스님들은 어디에 데려다놓아도 제 몫과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지요. 그것이 바로 한암 스님이 주창한 승가오칙(僧伽五則)에 근거한 것입니다. 스님이 되면 다섯 가지 분야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선으로써 지혜를 얻어 구경성불의 기틀을 세우고, 열렬토써 중생구제의 뜻을 세우게 했으며, 간경으로써 바른 정견을 골추 세우게 했고, 의식으로써 윤리의 사표가 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기림수호로써 불교토장엄의 원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누구든지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는 교육풍토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노래든 춤이든 체육이든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교육법은 다른 분야에는 쓸모가 없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교육방법이 옳은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고, 어느 분야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자세라고 봅니다. 속속을 따르듯 오대산 기운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아빠다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자신이 말로 담아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수선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사파타 센터 전담하는 멘토는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아빠다 마스터 강좌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동구 경향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ftacenter.co.kr E-mail: heegyun@arada21.com



원주 성불원 원장 현각 스님은 3월31일 월정사 한암대중사 수행취임에서 '한암 스님의 엄격한 수행가풍은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분야에도 소홀함도 막힘도 없어야 합니다. 한암 스님과 관련된 일화 한 자락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암 스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원 살중에 서울 봉은사 조실을 끝으로,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은 채 선 수행에 몰두하셨지요.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에 밀려 흔적도 없을 정도로 지리멸렬된 근대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허 선사의 원력이 한암 스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치 틀 없는 엄격한 수행가풍

경허 선사의 수행가풍을 이어받은 한암 스님이 어느 추운 겨울 날, 상원사에 있을 때 노비구니 스님이 이 절벌보궁 참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기도를 열심히 한 나머지 날이 저무는지도 몰랐던 노비구니 스님이 간신히 상원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날이 춥고 어두워, 원주스님에게 '하룻밤만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지요. 그래서 그 원주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물었는데, 한암 스님이 일언지하에 "내려가라!"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한암 스님은 "사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밝은 날에 내려갔을 것이다. 만약 노비구니 스님이기도를 잘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신심과 기도가 깊으면, 호랑이 만발 격정도 추위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길을 나서면 길을 밝혀 줄 것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고 했습니다. 경전에서 신심이 깊으면 물에 빠져도 물에 젖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암 스님은 또 "수행자가 밤이 무섭고, 추위가 무

섭다면 쓸데없는 수행자"라며 단호히 내치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터럭만큼도 틀이 없는 엄격함을 보여준 한암 스님의 수행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과 부처님의 말씀인 <금강경>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한암 스님의 일생 면면에 엄격한 속에서 따뜻함이 있고, 부처님 속에서 강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정신과 한암 스님의 수행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금강경>은 뜻을 알든 모르든 신도들은 무엇이

■ '선문답21조'에서 가려뽑은 마음공부법

생전에 언설을 특히 경계해 범어집조차 남기지 않았던 한암 스님. 그렇기에 선의 본질과 수행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한 <선문답21조>가 갖는 의미는 남다른다. <선문답21조>는 한암 스님이 금강산 만일암에서 선원을 개설하고 후학을 지도할 때, 깨제중이던 비구 이력 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는데, 스님이 열반한 다음 후학들이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한암 스님의 선사상을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논술한 <선문답21조>는 일상을 사는 재가자들의 마음공부에 훌륭한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참선은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마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도다. 도가 곧 선이다. 선은 곧 공생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중생심에는 평정한 마음과 맑은 마음이 있다. 청정심은 사람의 바른 길이요, 맑은 마음은 사람의 현한 길이자 불구멍이다.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가 바른 길을 버리고 편

독송합니다. 조계종단에서는 소의경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의경전이란 것은 이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부모님처럼 <금강경>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국불교에서 <금강경>은 부모와 같은 경전입니다.

"마음의 흐름 알아차려라"

불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입니다. 남방은 소승, 북방은 대승이라고 합니다.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원형대로 전해지기를 고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탁발행렬이지요. 생활모습도 부처님 당시 그대로를 추구합니다. 북방불교는 부처님의 사상적인 면은 시대별로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금강경>은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훨씬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면모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대승사교(大乘敎)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마음의 흐름을 딱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보리 존자와 문답으로 쉽게 말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적인 질문은 수보리존자가 "아 녹다라삼삼보리심을 발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쓰며 항복받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이후에는 27번 걸쳐 의상하고 답변하는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그럼, 보리심을 발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금강경>에서 세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광대심(廣大心)입니다. 한량없는 넓고 큰 마음, 즉 '일체중생을 내가 모두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제일심(第一心)입니다. '일체중생을 모두 제도는 했다'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부도심(不度心)'입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도, 제도된 일체중생도 없는 마음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만든 만다라를 그려 완성한 뒤, 순식간에 집착 없이 빛자루로 쓸어 없애버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그릇에 무엇을 담았으면 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는 순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없는 무공무진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바리밀 실천하는 불지되자

이렇듯 한암 스님의 엄격한 수행가풍은 <금강경>의 핵심 내용인 '견(見:금강처럼 견고함)', '예(銳:칼처럼 예리함)', '명(明:진리의 밝음)' 등과 일맥상통합니다. <금강경> 자체가 '능단금강(能斷金剛)'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능히 잘라내는 금강이라는 의미이겠습니까? 한암 스님의 일생과 수행가풍은 이처럼 불의와 시비 등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진리의 칼'이었습니다. 진리탐구에 몸을 사리지 않았고, 은갖 권력에도 겁내지 않았습다. <금강경>의 정신이 스님의 수행에 냉철하고 투철하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공의 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수행자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월정사/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맛이 없는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이 화두를 풀일없이 들어 마치 모기가 무서 소에 앉아 주둥이를 박지 못할 곳까지 몰입하듯 해야 한다. 만일 조그마한 차별의 생각과 터럭 짝 만한 계교와 헤아림이 그 사이에 동하면, 옛 사람이 말한 '집독이 마음에 침투하여 지혜를 손상한다' 했으니 학인이 가장 먼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 참구했다면, 어떠한 것이 열심히 힘을 얻는가?
-옛 스님이 말하기를, "힘이 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고 하니, 화두가 의심을 하지 않아 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짐에 이르러서야 육근(六根)의 문이 자연히 특 열리며, 홀로 드높고 드높으며, 평탄하고 평탄하게 되어, 마치 달빛이 시내 물결 속에 투사되어 부딪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잃지 않음과 같은 때에 이르러야 대오(大悟)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 터럭 끝만큼이라도 지각의 마음을 내면 순일한 오묘함이 끊어져서 대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 과정
● 전문가과정 ● 백진반 ● 사암침술반 ● 중요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안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백진반,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중요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침습위주 강좌
▶ 개강: 2006. 5. 1 월 · 화 반(주 · 야간반: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과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화(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 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과과정 **정통중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울: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승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 부산: 부산시 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승구 **문의: 051)804-8571, 018-312-7110**

(주)천성건설

공사개요

-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 석재, 부품 일체
- ◆ 석, 조각, 석물 일체
- ◆ 석, 불상, 좌상, 미륵
- ◆ 석, 탑, 대(대불상조각)
- ◆ 건설부문
- ◆ 석굴, 남포당 공사
- ◆ 석굴, 법당 조성
-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 석 공사 일체
-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사원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명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명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명
- 우리동 축대공사 용역사
- 가평 석굴법당 100명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본 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체창고)

◆ 공 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이재갑

(株)天星建設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250,000원

◇ **소리공양 종류**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영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빠 뛰어도 만족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북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같았기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연락처 031)736-3734**
해원사 치세요. **031)732-3790**

